

2018

봄 제64권 1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코스타리카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자립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



Contents

02 포토에세이

성경이 제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04 커버스토리_코스타리카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08 2018 성경 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81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말씀을 만나다

부활절 등장 인물

12 성경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랍권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첫 어린이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14 후원교회

사랑의교회(아프리카), 크리스찬 월드 가독신문(가나)

16 나의 삶을 바꾼 성경 한 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된 엘리자베스

18 후원자 이야기_최오구 장로

성경과 함께하는 삶, 어머니가 남기신 최고의 믿음의 유산

20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22 매일성경묵상

24 KBS 뉴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8년 3월 31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성경이 제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넘칩니다.
저와 같은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조이스(가운데)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반군 폭력사태로 남편과 10명의 자녀 중 7명을 잃었습니다. 절망 중에 국경을 넘어 온 조이스는 우간다 난민촌에서 내전 상처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조이스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성경을 받은 코스타리카 어린이

위치



중앙아메리카 남부

인구



약 490만 명

언어



스페인어, 영어

종교



■ 기독교 90%
■ 기타 10%

풍요롭고 아름다운 해변이라는 뜻의 나라,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이다.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전통에 더 의존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사회 발전에 무관심하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관해 기독교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Costa Rica

이와 같은 사회적 비판과 비난에 맞서,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성경에 집중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 총무 마이라 우갈데

“코스타리카성서공회에서
는 최근 “열린 책”이라는 프
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
스타리카 교회에 성경을 제
공하면서 이것을 공공장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저
는 잃어버린 책이 아니고 당
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라
고 적어놓았습니다. 사람들
이 지나가며 보이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하
시네요.’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으며 변화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코스타리카성서공회 마이라 총무는 현재 코스타리카 사역에 성경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가정 회복,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다양한 성경자료를 활용한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급증하는 가정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목회자와 지역 단체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셸리는 데삼파라도스(Desamparados) 지역의 교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있던 일을 나누었다.



성서공회 프로그램을 마치며(셸리 가운데)

“

회복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구절들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크게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간의 깊은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컸던 이 여성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구절을 읽으며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동생을 향한 분노로 고통스러워하던 이 여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정돈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 같은 교회에 다니던 동생이 여성의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상처 때문에 외면해왔던 지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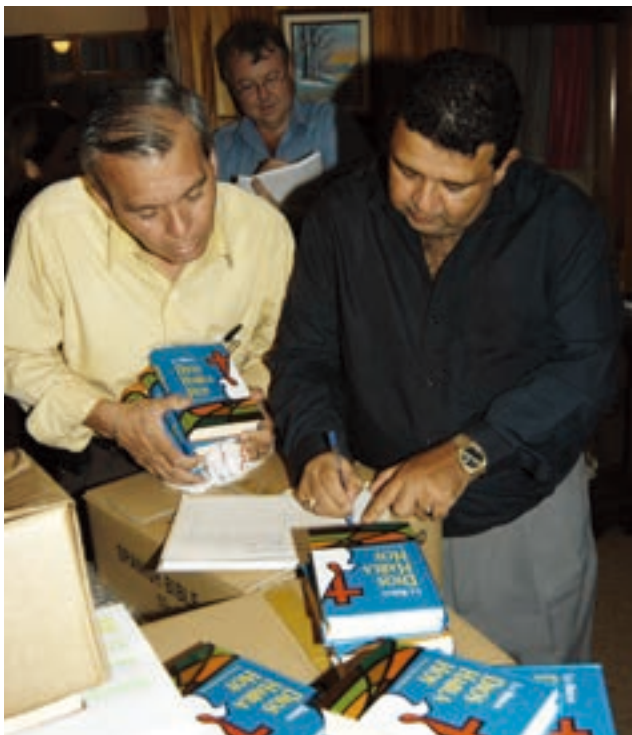
”



코스타리카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나누어준다.

성서공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혹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코스타리카 전역의 교회와 가정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교회도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다. 성경을 통해 코스타리카 교회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에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 직원이 본 공회에서 제작 보급한 성경을 확인하고 있다.



♥ 후원문의 ♥

코스타리카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만 원이면 2명의 코스타리카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아프리카 지역(34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세네갈**, 스와질란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중동 지역(17개국)

컬프,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여러분의 후원으로 81개 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굵은 글씨- 금년에 이미 성경이 발송된 국가(2018. 3. 5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9개국)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중남미 지역(21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와 아루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부활절 등장 인물

베드로 - 십자가 처형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마태복음 26:69-75; 마가복음 14:66-72; 누가복음 22:54-65; 요한복음 18:25-27).

바라바 -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범 죄자 또는 혁명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왔을 때 바라바는 로마 제국의 죄수로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무리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 가야바와 유대 공의회(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빌라도가 그 더러운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세 번이나 노력했지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했어요(마태복음 27:11-26; 마가복음 15:1-15; 누가복음 23:1-25; 요한복음 18:28-19:16).

마리아 -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었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으러 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최초의 증인 중 하나였어요(마태복음 27:55-56; 28:1; 마가복음 15:40-41; 16:1; 누가복음 24:9-10).

막달라 마리아 - 예수님이 일곱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구해주신 후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 무덤까지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마가복음 16:9-11; 요한복음 20:11-18).

다른 여자들 -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고, 아마 부활절 아침에 시신에 기름을 부으러 함께 갔을 거예요. 이 여자들 중에는 살로메(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요안나(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위에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누가복음 24:1-12도 보세요.)

가야바 - 18-36년경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공의회를 주도했어요(마태복음 26:57-68; 마가복음 14:53-65)

시몬 -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군중 가운데서 뽑혀서 강제로 끌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마태복음 27:31-32; 마가복음 15:21; 누가복음 23:26).

아리마대 요셉 - 예수님의 비밀 제자이자 유대 공의회 회원(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정에 참가하지 않은 산헤드린 회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요셉은 바위 속에 깎아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마태복음 27:57-60; 마가복음 15:42-46; 누가복음 23:50-54; 요한복음 19:38-42). 🌐

출처: 「재미있고 놀라운 성경의 세계」(대한성서공회, 2017)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랍권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첫 **어린이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2017년 대한성서공회는 아랍권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성경을 제작하여 아랍-이스라엘성서공회 2,000부, 팔레스타인성서공회 500부, 터키성서공회 500부 총 3,000부를 기증하였다.

지난 1월, 아랍-이스라엘성서공회 디나 총무는 아랍권 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증 성경을 전달하는 사진과 함께 본 공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아랍권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작과 보급을 후원해주신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스라엘 내 아랍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아랍권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된 첫 어린이 성경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성서공회, 터키성서공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인하여 아랍-이스라엘성서공회는 지역 교회들과 더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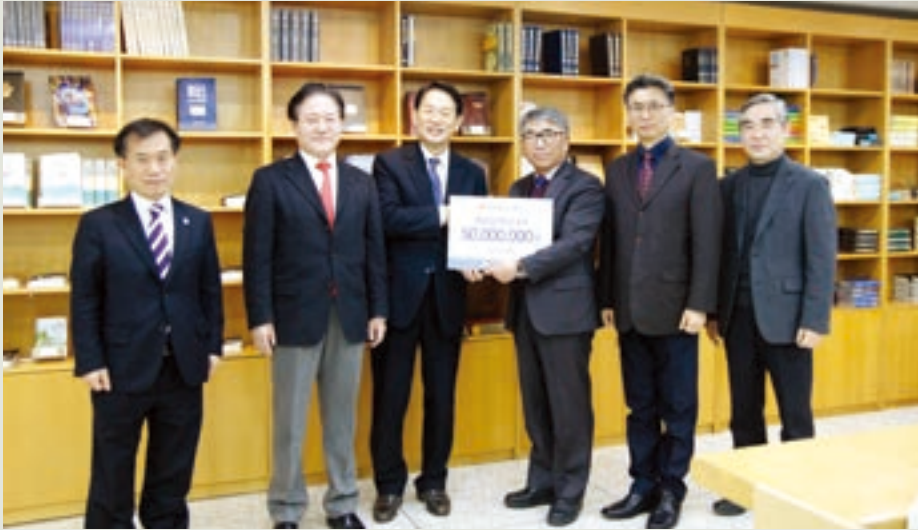
성경을 받은 후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기에 몇몇 학교와 교회에 이 성경을 보급하였고, 팔레스타인성서공회에서는 성서주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33년간 나사렛 지역에서 목회한 한 교회의 목사님은 성경을 받고 “소망과 사랑을 찾기 어려운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랍권 어린이들을 위한 첫 성경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희는 성경 보급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와 주일학교에 이 성경을 전하여, 성경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랍-이스라엘성서공회 디나 총무

사랑의교회 아프리카 성경 보내기 후원



해외 성경 기증을 위한 현금 전달식(왼쪽부터 김원구 장로, 최오규 장로, 오일환 장로, 본 교회 권의현 사장)

지난 2017년 12월 28일, 대한성서공회 서초회관에서 사랑의교회 장로들과 함께 10,000부의 성경 기증을 후원하는 현금(5천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교회는 2014년 필리핀에 7,200부의 성경을 기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라오스 8,000부, 코트디부아르 6,500부, 과테말라 1,584부의 성경을 기증하였으며 2016년 네팔에 10,240부, 2017년 2월 에티오피아에 16,500부, 7월 미얀마에 2,750부의 성경을 기증하였다.

특히 지난해 2월,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암하라어 성경 기증식을 하며 현지 기독교의 상황과 사정을 보게 된 사랑의교회 장로들은 아프리카 성경 기증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프리카 성경 기증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며 사랑의교회 오일환 장로는 “지난 2017년 2월 에티오피아에 방문하여 본 광경이 생각납니다. 한 권의 성경이 여러 성도들에게 읽히고, 사람들이 필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날 한글 성경 보급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성경 보내기 후원을 향한 마음을 전했다.

캐나다 토론토 <크리스찬 월드 기독교신문> 가나 성경 보내기 후원

지난 1월, 캐나다 토론토 <크리스찬 월드 기독교신문>에서 가나 성경 기증을 위한 현금 캐나다 달러 5,200달러를 대한성서공회로 전달하였다.

<크리스찬 월드 기독교신문>은 대한성서공회의 해외 성경 기증 사역을 캐나다 한인 교회들에게 소개해왔다. 지난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해 성경 기증 모금을 진행하여 본 공회에 후원금(캐나다 달러 10,205달러)을 기탁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가나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여 캐나다 달러로 총 5,200달러를 모아 대한성서공회로 전달하였다.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대한성서공회는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에 7,036부를 보냈고, 2017년 가나에 52,100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가나성서공회 총무는 “많은 가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 자신의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가나의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 및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성경을 반포하며 사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모든 이에게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경을 받은 가나 학생들



<크리스찬 월드 기독교신문> 2017년 11월 1일자 내용 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된 엘리자베스

“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루칼루
입니다.

”



저는 지금 우간다 나키발리 난민촌에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콩고의 마시시 지역에 살았습니다. 콩고에서 저는 강간당한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아무카베’라는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한 여성이 저를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더니 “저기 한 아이가 길가에 누워있는데 울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달려가보니 아이가 강간을 당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후에 그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가해자들 중 먼저 잡힌 한 명을 통해 나머지 3명의

공범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보고를 해서 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 달 뒤, 그 당시 체포된 이들과 그 형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시죠? 오늘은 자신을 구해야 할 차례네요. 오늘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끝내러 왔으니까요.” 그런 다음 마체테(크고 긴 칼)를 가지고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체테를 가지고 휘두르며 제 손가락과 팔,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을 넘어 우간다에 있는 나키발리 난민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난민촌 교회에서 성경을 기초로 한 상처 치유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네 번째 시간에는 아픔을 겪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나눴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슬픔을 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에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에 대해 나눴고, 열 번째 시간에는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제 공해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한 후로 평안하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과 성경을 제공해주신 성서공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사역을 키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상처 치유 모임 참석자들

성경과 함께하는 삶, 어머님이 남기신 최고의 믿음의 유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 반주로 시작된 믿음

“이 찬양이 저희 어머니 믿음을 대표하는 찬양이자, 간증입니다.”

최오규 장로(사랑의교회)는 생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최오규 장로의 어머니(故권순애 여사)는 강릉 출신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려서 교회와 성경을 접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 가문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꿈도 못 꿔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께서 수업을 준비하고자 풍금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그 풍금 소리를 듣고 어떤 노인 한 분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시골 동네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노인은 예배 찬양 반주를 해 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중, 풍금 소리에 이끌려 최오규 장로의 어머니를 찾았다. 그 주 예배의 찬양 악보를 전해주며 “반주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와서 함께 해주길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갔다. 열떨결에 악보를 받고 고민하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습을 해보았던 그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438장[통495장])’였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으로 6개월여 부모님 몰래 교회를 나가던 중, 부모님께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들켜 종아리를 맞고 머리카락도 깎여 일하던 학교에도 못나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왔고 이후 70년 동안 교회 반주자로 봉사를 했다.



故권순애 여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최오규 장로(왼쪽에서 세번째)

성경 필사 그리고 암송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꼭 읽고 외우게 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성경을 외우지 못해 어머니께 종아리를 맞곤 했습니다.”

유독 성경 읽기를 강조했던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했다. 본인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였는데, 그의 영정 앞에는 그간 해왔던 필사성경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성경을 써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늘 성경을 필사하셨는데, 저희에게 그 필사 성경을 유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최 장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다. 최 장로는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 자신 역시 자녀교육에 있어 늘 성경과 함께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것

이 아니고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저 역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늘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며, 최 장로는 2012년부터 매월 대한성서공회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 아프리카 성경 보내기에도 함께 마음을 모았다. 최 장로는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생명 사역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전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내는 사역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이 한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했으면 합니다.”라며 성경 보내기 사역에 대한 마음을 전하였다. 



최오규 장로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필사 성경



최오규 장로 해외 봉사활동(맨 왼쪽)



인도

인도성서공회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기다리는 소수민족어 성경번역을 위해 각 지역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에는 22개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잘 이루어져서 10억 명의 인도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는 새로운 지도부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지역 교회와의 강한 협력관계를 이어가 성서공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다가스카르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성서공회의 사역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단

남수단성서공회는 2012년에 설립된 이래로 여전히 걸음마 단계의 성서공회입니다. 성서공회가 세워진 이래로 오늘날까지 내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많은 남수단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가정에 병든 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아이의 눈에 악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부모는 아이를 주술사에게 데려가 치료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반성경의 봉헌식 날, 그 아이의 부모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기증 성경을 받았습니다. 봉헌식에서 말씀을 듣고 기증 성경을 받고 난 이후 아이 아버지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깨끗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반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의 후원으로 2017년 12월 13일에 봉헌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통하여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수단성서공회 총무(위)와 성경을 받은 사람들(아래)



<매일성경묵상>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메일로 말씀을 보내드리는 매일성경묵상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매일성경묵상은 매달 주제별로 구성된 성경 구절과 함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이에 대한 짧은 묵상 그리고 기도문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말씀따라 하루하루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성경묵상 구성>

1. 오늘의 말씀 :

매일 묵상할 성경 구절

2. 길잡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배경 설명

3. 새길 말씀:

오늘의 말씀 중 핵심 구절

4. 묵상: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여 새겨야 할 부분

5. 기도: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신청안내

매일성경묵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bible@bskorea.or.kr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신청 1~2일 후부터 매일 이메일로 매일성경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성경묵상> 목상표

4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기뻐하라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1(부활주일)	누가복음 24:1-12	24:5,6
2	누가복음 24:13-35	24:32
3	누가복음 24:36-53	24:49
4	로마서 3:19-31	3:24
5	로마서 4:1-12	4:3
6	로마서 4:13-25	4:25
7	로마서 5:1-11	5:11
8	로마서 5:12-21	5:21
9	로마서 6:1-14	6:8
10	로마서 6:15-23	6:22
11	고린도전서 15:1-34	15:20
12	고린도전서 15:35-58	15:52
13	고린도후서 1:1-11	1:4
14	고린도후서 2:5-17	2:14
15	고린도후서 3:1-18	3:18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16	고린도후서 4:1-15	4:6
17	고린도후서 4:16-5:10	4:18
18	고린도후서 5:11-6:13	5:17
19	고린도후서 6:14-7:16	6:16
20	에베소서 1:1-23	1:23
21	에베소서 2:1-22	2:13
22	에베소서 3:1-21	3:12
23	에베소서 4:1-16	4:3
24	에베소서 4:17-32	4:23,24
25	에베소서 5:1-21	5:2
26	에베소서 5:22-6:4	5:21
27	에베소서 6:10-24	6:11
28	베드로전서 1:1-25	1:3
29	베드로전서 2:1-25	2:9
30	베드로전서 3:1-22	3:15,16

5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1	로마서 8:1-17	8:6
2	로마서 8:18-39	8:39
3	로마서 12:1-21	12:10
4	로마서 13:1-14	13:10
5	로마서 14:1-23	14:19
6(어린이주일)	시편 80	80:14
7	로마서 15:1-13	15:13
8	요한복음 14:1-14	14:6
9	요한복음 14:15-31	14:27
10	요한복음 15:1-17	15:16
11	요한복음 15:18-16:15	15:19
12	요한복음 16:16-33	16:33
13	사도행전 1:1-11	1:8
14	사도행전 1:12-26	1:24,25
15	에스겔 1:1-28	1:13
16	에스겔 2:1-10	2:8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17	에스겔 3:1-15	3:12
18	에스겔 3:16-27	3:24
19	에스겔 36:1-15	36:9
20(성령강림주일)	에스겔 36:16-38	36:26
21	에스겔 37:1-14	37:6
22	요엘 2:28-3:8	2:28
23	사도행전 2:1-13	2:4
24	사도행전 2:14-28	2:28
25	사도행전 2:29-47	2:38
26	사도행전 3:1-10	3:6
27	사도행전 3:11-26	3:19,20
28	사도행전 4:1-22	4:11
29	사도행전 4:23-37	4:33
30	사도행전 5:1-16	5:3
31	사도행전 5:17-42	5:42

6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1	히브리서 3:1-19	3:15
2	히브리서 4:1-13	4:12
3	히브리서 4:14-5:10	4:14
4	히브리서 5:11-6:12	6:12
5	히브리서 6:13-7:10	6:20
6	히브리서 7:11-28	7:26
7	히브리서 8:1-13	8:10
8	히브리서 9:1-22	9:14
9	히브리서 9:23-10:18	9:28
10	히브리서 10:19-39	10:22
11	창세기 9:1-17	9:12,13
12	창세기 15:1-21	15:6
13	출애굽기 19:1-25	19:5,6
14	출애굽기 20:1-21	20:2,3
15	출애굽기 23:20-33	23:20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16	출애굽기 24:1-18	24:3
17	신명기 29:1-29	29:9
18	신명기 30:1-20	30:20
19	신명기 31:1-29	31:8
20	신명기 31:30-32:18	32:4
21	신명기 32:19-44	32:36
22	신명기 32:45-33:6	32:46
23	여호수아 1:1-18	1:8
24	여호수아 2:1-24	2:24
25	여호수아 3:1-17	3:10,11
26	여호수아 4:1-24	4:24
27	여호수아 23:1-16	23:14
28	사무엘하 7:1-17	7:8,9
29	사무엘하 7:18-29	7:22
30	시편 89:1-37	89:14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전 세계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현장의 소식과 감격의 순간을 다양한 콘텐츠로 보실 수 있으며, 매일성경묵상 및 다양한 성경 읽기 자료들을 최적화하여 이제 핸드폰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skorea.or.kr>



대한성서공회 페이스북 좋아요! 

페이스북에서  **대한성서공회**  를 검색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성경 구절과, 다양한 해외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oreanBibleSociety/>



'성경 보내기(문서 선교)'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주소									
약정금액	매월	원(성경 권)	이메일	소식지 이메일 요청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체일	매월 5일	매월 15일	매월 25일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은행명	계좌번호					
	매월	20,000원(성경 4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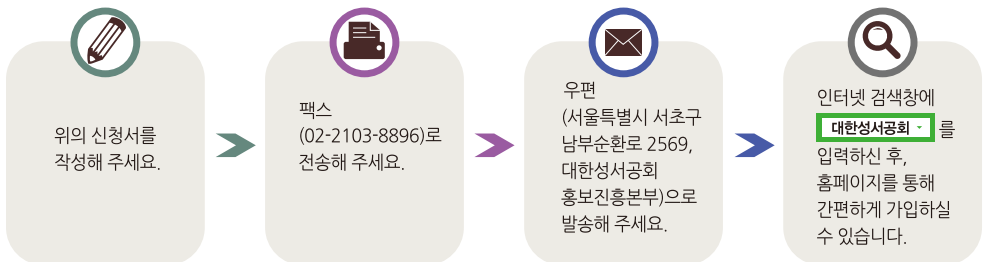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기독교가 핍박 받는 지역에 성경을 전해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교활동도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핍박이 계속되는 지역에 성경을 전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대한성서공회 (매일성경묵상)을 신청하시면 말씀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ible@bskorea.or.kr로 성함과 메일주소를 보내주세요.